이사회 회의록

2019년 2월 15일

사회복지법인 효광원

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이사회회의록

1. 일　　시: 2019년 1월 15일 (금요일) 오후 15시00분 ~16시00분
2. 소집일 : 2019년 1월 15일
3. 장　　소: 효광원 프로그램동 1층 쎄미나실
4. 출석현황

가. 참석이사 성명: 유흥식, 나봉균,　김정엽, 변창수, 김명희, 안영선, 김명희

나. 기타 참석자(감사) :　박원규, 이재성

4. 심의의결 내용

의안번호	안건명	표결수				심의결과
		찬성	반대	기권	무효	
제 1 호	2018년 법인·시설 세입세출결산안	7				가결
제 2 호	대표이사 변경 및 이사선임	7				가결
제 3 호	기타운영안	7				가결

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.

2019 . 2 . 15.

대표이사 : 유 흥 식(인)

이　　사 : 나 봉 균(인)

이　　사 : 변 창 수(인)

이　　사 : 김 명 희(인)

이　　사 : 안 영 선(인)

이　　사 : 김 정 엽(인)

이　　사 : 김 명 희(인)

회의진행

성원보고

이사 김정엽 : 대표이사 포함 7분과 감사님 2분의 참석으로 효광원의 이사회의의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대표이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.

대표이사 : 2019년 효광원의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사회의를 하게 되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2019년 올 한해 효광원이 주님 안에서 운영이 잘되고 아이들이 이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총3건의 의안이 있는데 한 번에 간결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심이하고 의결하겠습니다.

이사 김정엽: 의안 심의 3건 시작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자료는 메일로 감사님들께 미리 보내드렸습니다. 감사님 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.

감사보고

감사 박원규 : 네 자료를 미리 받아 2018년도의 결산서를 이재성 감사님과 함께 보았습니다. 아무 이상 없이 예산 결산이 틀리지 않고 잘 사용 하였습니다. 추경 하셔서 잘 사용하셨고 세입 세출 예산, 결산 내에서 집행이 되었고 기본 재산과 잔액증명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.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제1호의안 2018년 법인 시설 세입세출 결산안]

이사김정엽 : 사무국장의 업무 보고 및 의안 심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사무국장 : 2018년도 법인 및 시설의 실적보고 및 2018년 법인 시설 결산 안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다. 제1호의안 2018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8년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후원 15,000,000만원을 후원받아 10,000,000원은 해양캠프를 잘 다녀오고 5,000,000원은 평창패럴올림픽 관람을 무사히 마쳐습니다.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랑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이들 도박중독에 관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수 있도록 집단치료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둔산동 킴벨피부과 병원이랑 협약식을 갖고 아동들 문신제거수술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.

2019년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 배분사업 선정되었 보호자캠프 참여보호자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겠 되었습니다.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도 지원사업이 공모되어 특별활동을 무난히 진행 할 수 있겠 되었으며.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가족역량교육 사업 선정되어 백이십만원 지원받아 보호자 캠프 한달 를 잘 진행 하였습니다. 마음의온도 37도 캠페인난방비 지원사업 선정 되어 육십만원 지원 되었으며 국토종단 독도에서 백령도까지의 사업은 유한킴리 지원사업 선정되어 사백팔십만

원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회의자료 7쪽부터 10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. 다음은 법인 및 시설 결산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법인의 총세입결산액은 이천사백팔십만삼천사백십원(24,803,410)이며 세출결산 액 차기 이월금 천육백사십만이천사백칠십원(16,402,470)을 포함하여 총 이천사백팔십만삼천사원(24,803,410 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법인 세입 세출 총괄내역 및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회의자료 21쪽에서 26쪽에 있습니다. 예금 잔액 증명서가 회의자료 27쪽 및 28쪽에 첨부 되었있습니다.

이사 나봉균 : 문신제거는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?

이사 김정엽 : 둔산동 킴벨피부과입니다. 문신이 큰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

이사 나봉균 : 1년에 몇 명씩 하고 계시나요?

이사 김정엽 : 한달에 2명씩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효광원 퇴소 후에도 오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다.

이사 나봉균 : 언제부터 진행이 돤건가요?

이사 김정엽 : 2018년부터 김현 지도신부님이 지인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.

이사 나봉균 : 훌륭합니다. 아이들이 기꺼이 동의를 하고 히겠지요?

이사 김정엽 : 네, 보호자 및 아동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한끼100나눔 배분사업도 하신건가요?

이사 김정엽 : 네, 배분사업 신청하여 2018년 2019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법인 이월금이 계속 줄어들어 걱정입니다.

이사 김정엽 : 법인에 특별히 후원금이나 수익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후원금에 의존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

사무국장 : 2018년도에는 대목적관 건물등기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.

이사 김정엽 : 이번 이사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아 지만 지난 이사회의 때 변창수 이사님께서 제안하셨던 법원위탁금을 법인으로 받아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에 대한 말씀은 아직 법원이랑 직접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. 회계원칙에서 과연 가능한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감사 박원규: 원칙적으로는 효광원 법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육비, 운영비를 줄때 학교에 직접주라고 하지 법인으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.

이사 김명희 : 법원 위탁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효광원에서 그룹 홈을 운영할 때가 이었습니다. 퇴소하고 갈곳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룹 홈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전체비용을 거기에서 충당해서 사용했습니다. 법원에서는 필요한대로 쓰라는 것입니다. 시군구에서 그에 대한 간섭을 할 때도,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줬었습니다. 그래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단 법원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원칙적으로 위탁비용이라서, 위탁비용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.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법인으로 올려

면 예산서를 다 받아야 합니다.

이사 김정엽 : 이런 내용을 법원에 회의갈 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회의록 정리함에 있어서 기타안건으로 넣겠습니다. 지난 이사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잔액이 부족하여 걱정하는 마음에 또 이야기가 나와 법인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다음 시설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.

이사 나봉균 : 여기 나오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?

이사 김정엽 : 대전광역시에서 행안부에 프로포즈를 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프로젝트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당초 사업의 취지는 10개월간 젊은 사람들을 임시로 취업을 하면서 현장도 배우고 하는 사업입니다.

이사 나봉균 : 효광원 원생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요?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요?

이사 김정엽 : 외부인입니다.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고, 나이는 39세까지입니다.

이사 나봉균 :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.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.

이사 김정엽 : 완전한 일자리는 아닙니다.

이사 나봉균 : 네. 알겠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환경개선분담금을 4천 1백만원을 해 놓으셨던데, 이것이 사실은 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는지요?

이사 김정엽 :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예정항목을 재무회계규칙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 비용은 보조금에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. 법원에서 지원되는 비용 중에 사무실을 좀 바꿔야 하는 사업이 있어서 물론 사업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을 신청하려고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.

이사 김명희 :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안에 세목계정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비비 안에서 쓸 수가 있는데, 이사회의 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국고보조금은 아닌 것이지요?

이사 김정엽 : 아닙니다.

이사 변창수 : 효광원 시설을 위한 단독법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할 때도 시설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시설은 말 그대로 털어서 정산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, 그 비용은 시설에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법은 법인으로 법인재산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, 법인이 여러 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법인,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저는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

이사 김정엽 : 그럼 명칭을 이월사업비로 하겠습니다.

감사 박원규 :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집행이 조금 안되어 있는 거라 집행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
이사 김정엽 :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. 원 취지대로 아이들에게 집행하는 기관을 위해서 쓰는

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명확하게 하고 법원에서도 수시로 와서 다 점검을 합니다.

이사 변창수 : 시스템 안에도 그렇게 남겨져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?

이사 김정엽 : 법원은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.

이사 안영선 : 그런데 법인 세입세출을 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위에다가 단위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

사무국장 : 네 알겠습니다.

대표이사 : 이사님 감사님들 사업보고나 결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18년 법인 및 시설의 결산안에 동의합니다.

이사 김명희 :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: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모두 예로 답하여 가결됨을 선포함.)

[제2호의안 법인 이사 및 대표이사 교체의건]

대표이사 :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효광원 대표이사직 사임할 의중을 말씀드리고, 후임으로 국장신부님이 대표이사직을 맞아주시면 하는 의중을 전달하였고. 그 당시 신부님들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끝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말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나봉균 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 정관에 보면 이사 및 감사님들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유보 시에는 선출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.

나봉균 이사 후임으로는 안광훈 대덕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을 모실 것을 건의합니다.

이사 변창수 : 대표이사직에 나봉균 이사님을 나봉균 이사 후임 안광훈 이사님 추천합니다.

이사 전원 : 찬성합니다.

이사 김정엽 : 새로 선출되신 효광원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이사 나봉균 : 감사합니다. 각 교구마다 주교님들이 그동안 사회복지 대표이사를 하셨는데, 각 교구 사회사목국장 신부들 회의를 하면서 점점 총대리 신부나 사회사목국장이 이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효광원을 비롯해서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, 충남가톨릭 사회복지회의 대표이사를 제가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요. 아무튼 지극히 현실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신부가 맡는 것 같 구요. 그 대신에 제가 인사이동으로 떠나게 된다면 후임자가 하게 될 겁니다. 행정적으로는 번거롭겠지만,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여기뿐만 아니라 가톨릭사회복지 법인들이 튼튼 하고, 건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특히 효광원은 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시고, 김현 지도신부님이 역동적인 움직임 좋은 것 같습니다.

좀 전에 김현 지도신부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역동적은 움직임, 혹은 가톨릭적인 사회복지를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법인 재정을 이야기하면서도, 엄밀히 따지면 교구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설립자이신 김영환 신부님 계실 동안은 신부님 사비로 후원하시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이였고, 교구하고 연관도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인사교류도 하고,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도 신경을

더 쓰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이사 변창수 : 원안에 동의합니다.

이사 김명희 :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: 모두 동의하여 가결됨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을 완료하고 취임을 승낙하다.

대표이사 : 나봉균 (700319-1402812)

이 사 : 안광훈 (790612-1408529)

대표이사 :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모두 예로 답하여 가결됨을 선포함.)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폐회 하고자 합니다. 전원 동의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모두 예로 답변) 폐회를 선포합니다.

폐회시간 2019년 2월 15일 오후 16시 00분

대표이사 : 유 흥 식(인)

이 사 : 나 봉 균(인)

이 사 : 변 창 수(인)

이 사 : 김 명 희(인)

이 사 : 안 영 선(인)

이 사 : 김 정 열(인)

이 사 : 김 명 희(인)

기 록 자 : 사무국장 권명자